

광장의 우울한 분노 - 2030 극우 남성의 마음과 청년 예수의 정의

박혜인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연구위원)

- I. 들어가는 말
- II. 광장의 우울한 분노: 2030 남성과 극우화
 - 1. 일베의 마음, 태극기의 마음
 - 2. 파시즘으로 쏘리는 마음: 남성성의 위기?
- III. 2030의 절망과 욕망: 신자유주의 시대, 허무와 혐오의 전염
 - 1. 니체의 원한, 21세기 극우 그리고 개신교
 - 2. 쾌락과 탈진실: 2030 남성의 영혼을 잠식하다
- IV. 나오면서: 기독 청년의 과제와 청년 예수의 정의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2.04>

• ABSTRACT •

Raging Despair in the Square: Heart of 2030 Far Right Youth and Justice According to Christ

Researcher Park, Hyein (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This paper reflects on the meeting of far right protestantism and 2030 male youth who supported 12.3 insurrection, by exploring emotion, culture and Christian ethics. Beyond the logic of exclusion, it suggests first addressing the existential crisis of young men in South Korea, with emphasis on healing, and the kingdom of God. 2030 male anxiety stems from the unceasing devaluation by neoliberal capitalism, rendering it vulnerable to the radical right. Uprooted young men advocate pre-modern patriarchy and nationalistic masculinity to gain sense of superiority. Far right protestant churches rally their anger, intensifying anti-communism, ethnocentrism and authoritarianism.

Wendy Brown's analysis of neoliberalism, white supremacy and male radicalization in America traces nihilism that desacralizes all values except capital. Brown's reading of resentment also helps identifying the widespread male hatred and destructiveness. However, such masculinity contradicts the fundamental teaching of Christ. Christian values teach prophetic critique, subversive love and service, in contrast to the violence of far right ideology. This study concludes by inviting 2030 male youth to be transformative agents, co-workers and the heirs to kingdom of God.

Key words: Korean Far Right Protestantism, Christian values, far right youth, masculinity, neoliberalism, resentment, Kingdom of God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현재 개신교를 과잉 대표하는 극우 이데올로기와 2030 남성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을, 감정과 문화의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030 남성 보수화(와 극우화)’라는 미디어의 프레임과 진보 진영의 선행 연구는 2030 남성을 대척하고 비난하는 담론화에 그쳐, 현상의 이해 및 탐구에 이르지 못하고 혐오와 배제의 분리된 시선을 양산한다.¹⁾ 청년 남성과의 소통단절은 이들을 광장으로 소환한 불안, 열패감, 박탈감을 간과할 뿐 아니라, 진보 정치가 미처 응답하지 못한 2030 남성의 요구를 극우 세력이 포섭하는 최근의 조직적 흐름을 심화시킬 뿐이다.²⁾ 이러한 경향은 국론 분열뿐 아니라 개신교 내부의 젠더 갈등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적의의 이분법을 성(性) 정체성·정치 대결로 가져와 우위를 점하려는 남초·여초 커뮤니티의 전략을 답습하기보다는, 우선 생존경쟁으로 청년 남성을 피폐하게 내모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함께, 권위주의적·전체주의적 욕망과 폭력에 이들을 동화시키는 극우 개신교의 윤리적 책임을 먼저 지목하고자 한다.

1) “극우적 집단을 특정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계급, 이념,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성적체성 등, 어느 한 면에서라도 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공격을 정당하게 여긴다면 극우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극우적인 인구집단을 찾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께 성찰하는 일이다. 극우적 세계관은 특정 세대, 젠더, 계층, 종교에 국지화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이대남, 개신교, 상층, 하층 등 특정 집단에 극우의 혐의를 두는 것보다는, 도처에 편재하는 폭력의 잠재성을 주시해야 한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회적 토양이 정치화되는 것이다. 대선 이후 사회의 관심이 보통 사람들의 극우적 사고 경향에 집중되었지만, 가장 강력한 위험은 사람들의 마음에 폭력성을 심거나 잠재된 폭력성을 증폭하고 결집하는 극우 조직과 집단, 운동, 미디어, 파워엘리트들이다.” 신진욱, “극우 문제, 제대로 봐야 한다,” 『한겨레신문』 2025년 7월 2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5798.html>, 접속일 2025년 7월 6일.

2) 양승훈, “2030 남성 프레임 전쟁—그들에게는 없는 응원봉,” 신진욱 외,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파주: 문학동네, 2025), 136-41.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세대포위론의 폭력적 주체로 표면화되기 이전까지, 청년 남성은 우리 사회에서 소비·오락자본으로서의 젊음이 아니면 주목받지 못했다. 기존 청년 담론 역시 세대 간 격차,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2030의 자기의식에 주목하는 대신, 이들을 교육하고 배출한 교회와 사회의 뿌리 깊은 공동 책임을 회피한다.³⁾ 2030만을 문제시하는 청년 담론은 청년기를 더 큰 생애주기, 곧 다른 세대로부터 분리하며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동정심”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고착화한다. 교회의 청년 사역은 진정한 관심과 돌봄, “이해와 위로.. 용기와 삶의 방향성”⁴⁾을 제시하며 이들이 세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회복하여, 참혹한 현실을 뚫고 나갈 지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춘 신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청년 극우화 프레임은, 그 배후의 자본 권력이 집중된 기성세대와 구조적 문제를 은폐한다.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옹호하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개신교 목회자 및 전도사들은 물신, 복음의 상품화, 성도의 종속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숭배한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청년의 노동력을 동원한다.⁵⁾ 물론 반중·반공 폭력 시위에

3) 배은경,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2015), 33-4: “신자유주의적 후기 근대의 상황에서, 근대적 젠더관계에 입각한 남성성의 표준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청년(남성)의 위기로 표상하는 것은 이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 세대 담론은.. 그들에게 사회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거나 사회문제의 원인을 귀속시키는 기성세대, 혹은 기존의 담론 지형이 낳은 관성 때문에 그들을 더욱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4) 이민형, “기독교청년의 신앙: 한국교회의 이미지, 경험, 기대에 대하여,” 『신학과 실천』 88(2024), 875.

5) 극우 개신교 서부지법폭동 가담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 코로나19사태, 한국의 IMF 체제 예속, 군부독재, 분단 정국의 차별과 혐오의 역사라는 깊은 적폐를 드러낸다. 한국 극우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기총은 1988년 반공 이데올로기 혁파와 통일을 지향했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 (이하 ‘88 선언’)에 발발해 창설된다: “선발 대형교회들은 반공을 신앙화하면서 군부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성장주의적 효율성에 부합하는 교회제도를 발전시켰다.” 장규식, “민주화 이후 한국의 개신교와 시민사

가담한 ‘자유대학’ 네오-파시스트 청년들의 극우화 프레임과 기독교 청년 남성성을 전적으로 동일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2030 MZ남성은 개신교의 극우이데올로기와 연합하여 광장으로 뛰쳐나왔다. 본고는 2024-5년 이들을 광장으로 몰아낸 분열된 마음은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이 아니며, 극우화된 2030 남성들이 공유하는 근원적 동기, 심리와 의식을 마주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과, 2030 남성이 직면하는 소외와 배제, 절망과 불안을 살펴보아야 왜 광장의 분노가 존재감을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

본론에서 상세히 다룰 미 정치이론가 웬디 브라운은, 광장으로 뛰쳐나온 백인(남성)우월주의·국가주의·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를 위치시키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과 대학가 극우 선동은, 한국 개신교 또한 이러한 극단적 모델이 상기시키는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 20개 주로 퍼져나가는 Old Glory Club(OGC), 독일의 AfD(Alternative for Germany) 등 세계의 2030 남성들이 극우화의 물결에 강렬하게 동조하고 있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

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48(2018), 19. 극우 개신교 세력은 1972년 10월 유신 개헌을 공개 지지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5·16 군사정변의 핵심 세력을 구성한다. 5·16 쿠데타를 주도한 상당수는, 제주 4.3사건에도 폭압적으로 개입한 서북청년회이다.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2022), 15-20.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 반공의 상징으로 한국 개신교를 부각시킨 서북청년회의 국내외적 역할은 역사학자 윤정란의 『한국전쟁과 기독교』 (파주:한울엠플러스, 2015)에 상술되어 있다.

6) “급속도로 증가하는 소외, 불안, 고립, 소속감의 부재가 청년 남성을 극단주의에 취약하게 만드는 양극화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 청년 남성과 공감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와 필요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통해 그들의 증오가 극우에 포섭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극단주의 서사는 해소되지 못한 청년 개인들의 불만을 비방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미의 창출과 세계 내 존재로서의 자기 확인이 필요한 에너지를 약용한다. 정작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의식과 상상할 수 있는 미래,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과 신체적 건강정신적 안녕인 것이다.” Cynthia Miller-Idriss, *Hate in the Homeland: The New Global Far Ri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167.

려해 볼 때, 이들을 좌절시키는 구조적 모순과 병폐, 극우화로 왜곡된 기독교 신앙과 윤리관을 포착하는 것은 유의미하다.⁷⁾ 개신교/극우/청년이라는 움직이는 표적(moving target)은, 향후 질적 연구의 지속적인 조정과 해석을 요할 것이다. 현상학적으로 2030 남성의 활동 시기와 사대, 인구 분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깊은 대화들을 통해서만 실제성을 갖춘 신학적·목회적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극우 2030 남성에게 내재된 공격성과 혐오 이면에는 희망과 염원의 상실이 있으며, 이를 경청하는 작업이 집단적 ‘낙인’에 우선해야 한다. 이들의 원인과 분노, 현재와 미래를 향한 불안에 대한 공감 없이 어떻게 공동체를 ‘함께’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무조건적 비난과 질책도, 무비판적 낙관도 아닌,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 남성의 의제가 정말로 보수와 극우로만 나뉘는지, 이들이 내세우는 가치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 과제이다. 이처럼 상식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본고는 먼저 전통적 세계 무양자로서 한국 남성이 지녔던 권위를 뿌리뽑힌 오늘날 2030의 경험, 이를 결집시킨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뭇과 장소를 잃은 청년 남성을 동원한 기독교 파시즘의 재현을 살펴보고자 한다.⁸⁾

7) “극우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영합은 국제적 흐름이다. 윌리엄 코놀리가 “실존적 르상티망”이라고 부르는 정동의 ‘전염’은 정치적으로 획일화통합의 힘이 강한 인종차별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힘은 자본주의의 탐욕, 종교적 배타성, 호전적 언론, 권위주의, 군사 침략의 전략을 통해 관찰된다. 극우 개신교의 종교적 정체성은 ‘무기화’된다. 미국은 총기 사용이 허용되어 적대사범죄시되는 인구 (흑인, 무슬림,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권력의 무기 사용은 쉽게 정당화되고, 미국 극우 개신교는 총기 소지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외국인과 나그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신 10) 성서의 가르침을 극우 복음주의 폭력으로 압도한다.” Catherine Keller, “Nationalism and a New Religion: Foxangelicals and the Agonism of an Alternative,” in *No Matter What: Crisis and the Spirit of Planetary Possibilit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24), 69-70.

8) 국문학자 권명애에 따르면, 청년 담론은 식민지 통치기에까지 소급한다. 일제의 폭압적인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황국 신민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피식민 한국 청년 남성들의

II. 광장의 우울한 분노: 2030 남성과 극우화

1. 일베의 마음, 태극기의 마음

성서적·신학적으로 왜곡된 남성의 심리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축소된 공감, 넘쳐나는 적대, 증오, 폭력, 혐오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극우 청년 시위의 물리적 폭력의 위험은 보호본능을 촉발하여,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윤리적,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공감의 한계를 낳는다. 2025년 서부지법 난입에 앞서 2014-5년에는 세월호 단식투쟁 피해자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였던 극우 온라인 남초 공동체 일베(일간베스트)가 대표적이다. 일베를 구성하는 청년 남성은 냉전 시대 반공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한국의 공고한 분단과 병역제도 없이 이해할 수 없다. “군대와 남성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주의적 남성성”이 이상화되고, 이를 위해 여성혐오와 비하뿐 아니라 “약함에 대한 극도의 혐오, 권력과 질서에 대한 숭배가 결합함으로써 일베는 진정한 한국 남자들의 공간으로 군림한다.”⁹⁾ 다치고 일그러진 젊은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증폭시키는 강력한 동인이었던 일베는, 온라인에 국한되던 폭력을 세월호 사태를 기점으로, 광장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파시즘적 열망에 전연된 극우 청년의 행보는 “모든 진지하고 진보적인 의제에 대한 모멸과 개그화”를 진행하면서 극우 기득권과 상호부조한다.¹⁰⁾

‘자발적’ 집단 동화와 협력은 또 다른 층위의 분석을 요한다. 전체주의 제국으로서 일본이 선전한 팽창의 욕망은, 불안과 공포, 혼란이 가중된 한국 사회에서 “패권 투쟁 및 정체성 투쟁”을 통해 출세를 노린 청년 주체들의 시대적 욕망과 길항하였기 때문에 성공한다. 대동아공영의 논리는 총동원 체제의 자본 창출이라는 새로운 형국과 맞물려, 청년 세대의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감 및 강박관념”을 불식시키고 이들의 정치·경제적 야망을 자극하고 포획하였다. “식민주의의 논리는 경쟁과 출세지상주의를 강화하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서울: 책세상, 2005), 299-301.

9) 배은경,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27.

신자유주의 체제가 2030 남성만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리와 상식을 넘어선 극우/국가주의/남성성이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을 포획할 수 있었다는 것은, 2030 남성이 경제, 문화, 교육의 신자유주의 황무지 한국에서 사회, 그리고 여성들로부터 혐오와 모멸을 경험하는 정황의 인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파괴적 경험이 “스스로를 ‘쓰레기화’ ‘병신화’하는 자기모멸”을 낳고, 온라인 공간에서 ‘쓰레기’적 재미를 유통·재생산한다. 논자는 이처럼 극단적이지만 솔직한 감정과 삶의 괴리에 대해 2030 남성이 터놓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 커뮤니티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2030 젠더 전쟁은 남성과 여성 커뮤니티의 정치적 담론화와 조직화 지형을 바꾸어놓았다.¹¹⁾ 현재의 ‘2030 남성=보수/극우: 여성=진보’라는 프레임과, 남녀 온라인 커뮤니티의 초양극화 양상이 10년의 논쟁을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치의 경험과 세력화를 일궈낸 여성들의 동력은 정치적·역사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이나, 이에 대비되어 주류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2030 남성이 “아웃사이더”로 지목되는 흐름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토화를 촉진하여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¹²⁾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남성들은 남성들끼리만 소통한 지 오래되었는데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청년 남성들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훈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연대란 무리한 요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는 비단 2030 남성에게 돌릴 수 있는 비판은 아니다. 상실·좌절·무기력과 불안의 정서가 팽배

10) 천정환, “애도의 한계와 적대에 대하여: 무감·비공감·반애도의 매개(자)들,” 인문학 협동조합,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서울: 현실문화, 2015), 205-6.

11) 구체적인 젠더 전쟁의 내용과 타임라인은 양승훈, “2030 남성 프레임 전쟁,” 143-6 참조.

12) 위의 책, 147.

한 초갈등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N포,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자조하며 노동과 생존으로 자기 자신조차 돌보기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과 대결하는 연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수의 청년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너무나 확고하게 긍정하기 때문에 부정적 견해나 비판을 표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¹³⁾ 정계와 여론은 2030 남성의 황폐한 토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구체적 정책도 내놓지 못하는 반면 이들의 이탈만은 대서특필한다. 극우적 경로만이 이들의 우울한 분노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현실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대안이 시급하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에 따르면 마음은 “이성을 포함한 감정, 정서, 의지, 감각 등의 총체.. 공유하는 집단의 성향과 행위의 근원”이다.¹⁴⁾ 광장으로 뛰쳐나온 뒤, 전염성이 강한 일베의 마음은 일베 회원들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60-70대를 상회하는 ‘태극기’ 세대의 극우 성향은 일베보다도 더 역사가 깊으며 개신교적 색채를 확연하게 드러낸다. 일베와 태극기 세력은 함께, 극우 이데올로기의 깃발 아래 모여, “분단과 경쟁의 구조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는 평범한 시민”이 된다.¹⁵⁾ 전쟁과 분단을 피부로 경험하고, 반공의 기치 아래 북한을 적대하는 한국 보수 “개신교 대형 교회”가 태극기 세력을 대변하면서 성조기로 대변되는 미 극우 복음주의 헤게모니까지 빌리고자 했다. 후자는 탄핵 정국에서 실현이 저지되었지만, 기독교 남성의 극우화가 세계적 추세로 번지는 가운데 그 부정적 파급효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개탄은 개신교의 통렬한 자기비판을 촉구하고 있다. “성장세가 주춤한 대형 교회에서 신도

13) 배수찬, 『2030, 영혼의 연대기: 왜 그들은 윤석열을 선택했나』 (서울: 통나무, 2025), 156.

14) 김성경, “분단의 마음과 환대의 윤리: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탈북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5(2017), 210-7.

15) 위의 논문, 221.

들의 불안을 보수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반공주의적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분단, 근대화,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중첩되어 생산된” 혐오를 집약시키는 전략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파괴하려던 실상을 온 국민이 목격하였기 때문이다.”¹⁶⁾ 태극기 세대를 광장으로 소환한 한국 근현대사의 연장선상에, 이제 일베 극우 남성이 서 있다: “직업, 계획, 지향점, 자기 삶을 틀어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존엄, 자존심,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며 자신만의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박탈”당한 이들은 “다 같이 모여 자신들이 믿어온 것을 광장에서 함께 공유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한다.¹⁷⁾

이러한 분석이 내란 사태의 진상에 가깝다 해도, 극우세력과 거리를 둔 대다수 2030 남성은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젊은 층이 ‘계급화’되어 있다고 해도 모든 청년이 사회적 약자인 것은 아니며, 건전한 지성과 의지로, 사회 각 영역에 뿌리를 내린 청년 남성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극우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이 남성 개인마다 다르더라도, “공산주의 혐오증과 반공”이 흩어져 있는 세대의 남성을 묶어주는 “핵”이자 기독교적 가치로 과잉 대표되고 있는 참혹한 실상과 원인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의 인지와 숙의가 요청된다.¹⁸⁾ 한국 사회에서 약자를 자처하는 남성만이 극우 개신교의 메시지에 유인되는 것 또한 아니다.

한국의 청년 극우는 경제적 약자라기보다 강자.. 청년층에서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스스로를 중간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비극

16)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과주: 창비, 2020), 76.

17) 위의 책, 75.

18) 이봉석, “MZ세대의 통일외식과 한반도 ‘두 국가론’의 암묵적 지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 『기독교사회윤리』 59(2024), 372.

우 추정 집단에서는 25.1%였으나 극우 추정 집단 내에서는 57%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소득이 높고 계층 인식이 상층인 청년 남성의 극우 비율을 추정하면 근 40%에 달한다.. 현재 한국 청년층의 극우화는 불평등 증가에 불만을 가진 하위 계층의 극우화가 아닌 것이다. 기득권에 속한 청년들의,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극우화다.¹⁹⁾

짧은 줄고에서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 극우화의 지형도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그 문화가 오프라인 강자와 약자의 존재를 ‘알파’와 ‘루저’로 양분하는 측면은 자명해 보인다.²⁰⁾ 차이가 있다면 일베를 잉태한 디시인사이드는 ‘루저’들의 정제되지 않은 감정과 언어가 주류를 이룬다. 자신을 아싸(아웃사이더)로 규정한 2030 남성은 처지가 같은 유저들과 동병상련하며 온라인 공간에 결집하지만, 집단적 냉소와 적대감의 표출 밖 의제화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루저의 위치를 점하게 되더라도, 이들의 문화는 진보적 연대와 복지의 차원으로 확장·승화되기보다는 각자도생의 자구책을 찾는 것을 더 현실적으로 여기는 두드러진 세대성을 보여왔다.

극우 개신교는 이러한 세대성과 배타적 헤게모니에 대한 남성의 열망을 결합시킨다. 자본의 유혹과 혐오를 심어 주도적으로 극우 청년을 양산

19) 김창환,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 『시사HN』 2025년 7월 2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79>, 접속일 2025.07.08.

20) ‘알파메일’은 남성 커뮤니티의 이상적 신자유주의 주체다: “인서울 4년제 대학, 대기업 또는 전문직, 훈훈한 외모와 180 정도의 키, 인서울 주택 보유, 부모 노후부양 불요”라는 절대기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가치가 매겨진다.. 5점 만점에 3.5점 정도는 돼야 상위 15%에 들고, 내세를 만한 결혼을 노릴 수 있다. 나머지 청년들 중 다수는 결혼을 포기하고 인셀(비자발적 독신; **involuntary celibate**의 준말)의 삶을 선택한다. “인셀 남성들은, 영화 매트릭스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빨간 알약/레드필(red pill) 지식을 수용한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알파메일(위너)에게 끌리며, 버림받은 남성은 도태된다.” 배수찬, 『2030, 영혼의 연대기』, 249-258. 이러한 지식은 현대 청년의 근본적인 좌절과 배제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통적 사회이론의 평등 범주로는 설득이나 해결이 어렵다.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롬 14:17). 12.3 내란 이후 극우 선동가로 변모한 목회자들 역시 성서에 힘입어 정의와 권위를 탈취하려 했다. 이러한 메시지를 분별없이 끌어안으며 폭동에 가담했던 2030 남성 또한 윤리적·법적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개신교회의 과제는 이들의 재단과 처벌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2030이 청년 예수의 ‘근본’정신과 기독교 근본주의, 시민사회 기반을 흔드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육하는 신학 교육에 있다고 본다. 청년 예수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계명을 통해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한다. 한국 개신교회가 2030 남성에게—진보와 보수를 떠나—이 계명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는지 또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30 남성이 소통하고, 참여하고, 꾸준히 관계를 맺고픈 화해와 포용의 열린 공간으로 교회가 거듭나야 한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할 교회의 역할은 미미해지고 있는 반면,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끊임없이 조직화되고 대중화된 극우 강경 보수 개신교의 네트워크는 지치고 상처 입은 2030 남성의 마음을 공격적으로 공략한다. 태극기의 마음이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거쳐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의 마음과 합류한 것이다.

2. 파시즘으로 쏠리는 마음: 남성성의 위기?

한국의 MZ들, 특히 청년 남성 다수는 사회적 약자 신세다. 그런데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이한 약자다..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는 청년 남성”은 별로 없다. 첫째, 남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약자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젊은 남자니까 가오도 있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실을 잇는다.. 둘째, “사회적 약자인 청년 남성”이라는 관념은 관습적으로도 잘 수용되지 않는다. 젊은 남자라면 진취적으로 삶을 개척해야지, 사회적 약자 타령이

무슨 말인가? ..현대사회의 고립된 개인들(저소득 일용직,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백수 등)은 계급탈락의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계급탈락자는 늘 양산되고 결국 무리를 이룬다.²¹⁾

대다수가 도태를 면할 수 없음에도, MZ 남성들은 알파를 선망한다. 지금 계급탈락자가 되었어도, 2030 남성은 언젠가 자본주의 체제의 강자=부자=상류층으로 편입되길 원한다: “청년들도 약자 정체성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영앤리치고, 그들의 신은 나스닥이다.”²²⁾ 그러나 사회정책학자 이승윤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임금·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청년 남성의 비율은 2021년, 팬데믹 시기 47%,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²³⁾ 청년 남성들의 상승 욕구와 기대가 클수록, 자본의 기준으로 본인의 계층적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좌절의 골 또한 깊어진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시사하듯 한국 청년 남성에게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좌절감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다. “모두가 자기 이해관계만을 쫓는.. ‘헬조선’에서 2030 남성은 전적으로 홀로다.”²⁴⁾

논자는 헤게모니를 사회에서 취득하지 못한 불안과 위기의식이 계엄사태 이후 2030 남성의 폭력적 혐오와 배제로 이어졌다고 본다. 극우 정

21) 배수찬, 『2030, 영혼의 연대기』, 105-6.

22) 위의 책, 197.

23) “이 시기에 청년 남성의 거의 절반이 매우 불안정.. 분석 기간에 청년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청년 여성보다 오히려 높았다.. 청년 남성의 경우 사회적 규범과 기대가 계층 인식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청년 남성은 청년 여성보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더 낮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률이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경험이 청년 남성의 미래 전망에 청년 여성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승윤, “늑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지는 청년들,” 『광장 이후』, 196, 202-3,

24) 이지성, “코로나19 시대, N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113-7.

치인과 유튜버들의 선동에 휘말려 대학가에서 또래 학생들을 위협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중국인 상가에서 욕설을 퍼부은 자유대학이나 법원에 난입한 MZ 자유결사대의 2030 여성 참여에 대해서는 추후 독립연구의 필요성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2030 남성이 극우적 사고와 신념에 지적으로 얼마나 동의하는지 인식하기 전에, 이미 타자화되어 있는 이들의 소외, 체념, 냉소 그리고 한국사회를 향한 강렬한 불신을 파악해야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욕구”와 극우화의 극단적 적대감이 만나는 지점을 성찰할 수 있다. 계엄과 내란, 탄핵 정국에 주의를 기울여온 시민들과 윤리적 개신교인이 경악하는 것은 청년 남성을 겨냥한 저열한 극우화의 전략이 개신교에서 발원하였다는 대목이다. 미국 극우 기독교의 독재권력 신성화를 “기독교 파시즘”으로 정의한 크리스 헤지스와 함께, 정치신학자 박성철 또한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와 파시즘의 조우를 꼬집는다. 우선 파시즘 연구로 저명한 역사학자 로버트 팩스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려 한다:

파시즘은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 에너지, 순수성의 숭배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자, 그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집단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 법적인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 평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다.²⁵⁾

한국 2030 남성이 극우 파시즘에 사로잡혔다고 해도, 팩스틴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는가는 의문이다. 팩스틴의 파시즘 발전 단계

25) 로버트 O. 팩스틴,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손명희, 최희영 역 (서울: 교양인, 2005), 487.

를 12.3 전개에 적용한 사회학자 신진욱에 따르면 파시즘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상이므로 “고정된 본질의 표출”이 아닌 “파시즘이 탄생해서 사라나는 전체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²⁶⁾ 내란 전개 과정에 주목하게 되면, 극단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전체주의를 소환해낸 극우 개신교의 역할이 확연히 드러난다. 청년들에게 자신들보다 약한 존재들과 그들의 이질성이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남성성을 약화시킨다는 편견”을 확산시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시킨 설교, 집회, 테러는 파시즘의 성숙과 완숙 단계를 충족한다.²⁷⁾ 파시즘은 통상 세계대전을 추동한 독일과 이탈리아의 ‘고전적’ 전체주의를 지칭해왔다. 유럽 파시즘으로부터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논의가 청년 남성을 중심으로 재개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기독교의 왜곡된 근본주의가 파시즘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대 한국 상황에서 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개신교 내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 현상의 분석과 해결에 기독교사회윤리의 면밀한 연구와 주시를 요청한다. 고전적 파시즘이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남성성”을 절대화하였듯이, 우리 역사도 1970-80년대 군사독재를 거치며 지도자들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신격화”하였다. 이 와중에 한국 개신교회는 양적 성장을 위해 독재를 찬양하고 그 대가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오늘날 극우 기독교 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²⁸⁾

파시즘의 절정으로 일컫는 나치즘 또한 2030 남성 동원의 전형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청년 “계급탈락”의 참혹한 현실이 악화되었을 때, 청년의 심리와 의식구조를 착취·폭발시킨 것이 히틀러의 전략이었다: “그는

26) 신진욱,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 파시즘,” 『광장 이후』, 65.

27)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정치신학적 비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170.

28)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148-169.

자본가들과 계급탈락자 무리들이 연대해 사회적 약자(유대인, 호모, 집시)를 공격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었다.”²⁹⁾ 일원화된 국가적 의지를 통해 남성성을 재창조하자는 파시즘의 군사주의적 남성성은 이탈리아와 독일의 2030을 매료시켰다. 마을 공동체와 사회조직의 붕괴를 지켜본 청년들은 지루한 부르주아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반항심, 직위 상승을 누리하고자 하는 야망을 새로운 파시스트 청년단체와 여가 기관에 투사·해소하였다. 파시즘은 교육 프로그램에 스포츠와 군사 훈련을 강조하는 등 청년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남성적’인 사적 영역에까지 철저히 침투하였다. 개신교 극우 2030 남성의 출현은 부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역사와 파시즘이라는 초국적 현상의 지평이 함께 조망되어야 한다.³⁰⁾ 또한 기독교 파시즘의 흐름이 남성성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교회의 권위주의적 관행 효과를 외칠지 모르나, 물질적 여건과 자긍심이 고갈된 2030 남성에게 권위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수복해야 할 가치로 간주될 수 있다. 가상의 적으로 상정된 대상과 세력을 배제, 추방, ‘절멸’하는 극우 이데올로기가 기독교 청년의 의식을 잠식하고, 무장시킬 경우의 파급력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2030 남성의 노동력과 생산성을 착취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파시즘이 매력적 차악이 되지 않도록, 청년 주체를 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시대 한국 ‘가부장’의 남성성 또한 견고하였고 교회 안에서는 교리화된 문자주의로 고정된 성의 위계를 설파할 수 있었다.

29) 배수찬, 『2030, 영혼의 연대기』, 108. Paxton, *The Anatomy of Fascism*, 138-9; 143-4.

30) Robert O. Paxton, *The Anatomy of Fascism* (New York: Knopf, 2004), 203-4: “종교적 정체성이 민족의 단일화와 인종우월주의, 적의 악마화에 있어 국가적 정체성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종교에 기반한 파시즘이 부상한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경제력과 전문성, 사회적 지위를 갖춘 여성들이 새로이 주체로 부상하면서 전통적 차별 기제에 균열과 전복이 거듭되자, 파시즘의 잔재 또한 변형을 거듭하여 신장된 여권과 폭력적인 양상으로 충돌한다.³¹⁾ 2030 남성의 대척점에 선 한국 여성을 잠시 생각해 본다. 언론은 교회 바깥, 이미 사회 각 영역 최상층에 여성들이 포진해 있으며 급진적 여성주의를 받아들이는 여성들에 주목한다. 하지만, 생존과 위계적 권력을 두고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은 비단 남성들 뿐만이 아니었다. 개신교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신분제와 성차별이라는 사회의 벽과, 바울 서신의 ‘극우적’ 읽기를 선택한 한국 교회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이중의 벽을 뚫으면서 자기 몫과 존엄을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개별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눈부신 사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인의 63%를 차지하는 여성의 전임 목회자로서의 비율은 3-4%에 미칠 뿐이다. 아직도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 또한 건재하다.³²⁾ 혐오와 분노라는 마음이 오늘날 “문화 현상으로서.. 집단화되어 밖으로 분출되는 정체성 정치의 일환”이라면 여성이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한(恨)의 담지자가 아니었던가?³³⁾ 그러나 오늘날 2030 남성은 이 한의 해원(解冤)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와중에 태어나 “가부장제의 붕괴와 양성 평등의 거대한 시대 변화”를 겪으며 “부(富)뿐만 아니라 성(性)도 이제 양극화”된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아니면 열외가 되느냐는 압박감

31) “아버지 세대보다 더 가난하고 불안정.. 그런데 그 대신에 젊은 남성들이 붙잡은 것은 ‘마지막 기득권인 남성성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향유했던 권력, 가부장제 5000년 동안 견고했던 남자라는 특권을 ‘처음’ 박탈당한 이들이 그로 인한 분노를 보복의 형식으로 또래 여성들에게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백소영, “맘충 혐오의 후기-근대적 의미,” 권지성 외 『혐오와 한국교회』 (서울: 삼인, 2020), 215.

32) 삼프로TV 더 릴리전, “왜 이렇게 개신교가 극우화 됐냐고요?: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21:14-21:28 <https://www.youtube.com/watch?v=PSeWRxYnBCA> 최종접속일 2025년 6월 22일.

33) 백소영, “맘충 혐오의 후기-근대적 의미,” 『혐오와 한국교회』, 212.

에 피폐하게 내몰린 청년일 뿐이다.³⁴⁾ 더구나 “혈연이나 지역 연대와 같은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도시 중심의 개별 경쟁이 기본적인 생활 구조”로 자리 잡았다.³⁵⁾ IMF 이후 한국은 계급화라는 신자유주의 시대 신분제를 양산했고, 패배·탈락·박탈의 약함과 한은 젊은 남성들의 세계를 덮쳐 다양한 층위의 역차별 정서를 확산시켜 왔다.

그러므로 광장의 우울한 분노는 무한경쟁의 질서가 청년의 영혼을 억누른 결과로 터져 나온 것이지, 2030 남녀를 “범주화시켜서 정체성 정치를 통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³⁶⁾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혜와 자원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존 담론은 청년 남성‘만’을 문제삼기에, 이들의 절망과 열패감을 타자인 약자에게 표출하는 또 다른 혐오와 분노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다. 한편, 극우 개신교는 폭발 일보 직전을 앞둔 청년 주체를 긴밀하고도 효율적으로 파시즘과 결속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여 “남성 청년들이 과거의 진부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각본을 벗어나 자신의 시민권과 성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³⁷⁾ 목회와 신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종교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도 연결되는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된다.

남녀의 상호존중을 지향했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선 청년 남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고전 13:13)를 증명할 귀한 역할이 있음을 조명해야 한다. 기독교적 남성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고전 11:7)으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³⁸⁾ 이를 억

34) 어수용, “2030 남성은 왜 민주당에 등 돌리나,” 『조선일보』 2025년 3월 3일,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5/02/04/RWIGX7ITVVBKXEHIJW2VFKMCSM/>, 최종 접속일 2025년 7월 6일

35) 백소영, “맘충 혐오의 후기-근대적 의미,” 212.

36) 위의 책, 223.

37) 배은경,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35.

38) 기독교적 정체성의 쇄신에는 불편한 전제와 예기치 않았던 배제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본고는 바울 서신이 뿌리 깊은 유대 민족의식과 가부장제에 영향을 받되 이와

압적 가부장제로의 회귀와는 절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극우 개신교는 인종주의와 제국주의가 혼합된 남성성의 고양을 통해 2030을 흡수하고 권력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윤리적 개신교회는 분열과 혐오를 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롬 8:28). 2030 남성의 인생 경험, 세계관, 그들의 고통을 경청하고 위로하며 청년을 거느리고 조종하려는 극우 개신교의 파시스트적 행보와 결별해야 한다. 기독 남성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됨으로 그 밖의 모든 정체성을 초월하는 데서 회복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³⁹⁾ 엘리트 성전화된 교회의 힘과 우월의식을 답습하여 열패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 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예수가 편애했던 가난한 자들, 어린이들, 병든 자들과 죄인들, 슬픈 자들과 삶에 절망한 자들, 공의에 굶주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자들,

씨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내 인종과 계급, 그리고 성차별의 해소를 목표로 했음에 주목한다 (갈 3:26-4:7). 2030 청년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갈 3:28)이라는 변혁적 메시지가 보편적 윤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보편윤리의 기준 자체가 붕괴, 실종, 무(無)화되는 문화적 정황에 더하여, 기독교윤리 준거로서의 성서가, 성과 젠더 양극화적 해석의 각축장이 되어 버린 현실이다. 성서 문자주의는 새로운 판본들의 발굴과 외경, 기독교 역사의 모순에 대한 대중들의 폭발적 관심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 다른 한편 급진적 여성주의는 남성중심의 성서적 틀 자체를 억압기제로 상징하고 부인한다. 예컨대,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자격이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권위 자체를 부인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헬라인으로 믿음의 주체가 확장되며, 신분제라는 엄격한 사회 질서를 초월하는 교회 공동체 내의 평등이 지닌 급진성을 간과하게 된다. 시대성의 한계와 함께, 오늘날 2030 남성의 가치지향을 끌어안고 성서가 지향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합당한 남성성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이다. 극우/파시스트적 남성성을 경계하되, 청년 예수와 성서적 정신에 부합하는 남성성에 대한 전환적 읽기를 추구해야 할 절박한 필요를 인정하지는 것이다.

- 39) 청년 남성이 분노의 희생양을 찾도록 부추기는 개신교 극우화는 반성서적 퇴행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임을 천명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시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용서의 실천으로, 인종, 계급, 성별 등 당대 거의 모든 가치와 정체성의 차이를 상대화시켰다.

실패한 자들, 세리와 창녀들을 억압하기 때문이다.”⁴⁰⁾ 한국 개신교가 지난 막강한 영향력이 이 땅에 선과 화합을 일구지 못하고, 도리어 사목의 대상을 향한 폭력을 조장할 때 2030 남성은 ‘자유’ ‘애국’의 이름으로 절대화된 파시즘의 우상을 거부해야 한다. 기독교 청년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지, 정치적 계파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전 3:22-3). 그러나 2030 남성과 한국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이상은 아직 신학적 구성의 시초에 머물러있다. 청년들은 아직 교회에서 불만과 분노를 넘어 설 공감, 환대, 존엄을 찾지 못했다.⁴¹⁾ 고전적 파시즘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면, 오늘날 2030 남성은 불평등과 계층화, 탐욕과 원한을 양산하는 물질만능주의의 급류를 온몸으로 헤쳐가고 있다.

III. 2030의 절망과 욕망: 신자유주의 시대, 허무와 혐오의 전염

1. 니체의 원한, 21세기 극우 그리고 개신교

국가는 민주적 구성체가 아니기에 이제 시장 모델처럼 소유되고 운영된다. 도태되고 배제된 이들은 안정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아버지’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는 사상적으로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경쟁과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지키며 경영하는 시스템을 꿈꾸었지만, 현재 신자유주의의 꿈은 권위주의적 정치와 성난 군중에 의해 지탱되는 악몽이다. 신자유주의 원칙이 반민주적·반사회적·파괴적인 정치적 열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

40)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213.

41) “교회 청년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생활세계의 현존하는 삶을 의미있게 해주는 진정한 가치를 교회에서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를 교육하지 못한 교회의 신앙과 신학이 문제다.. 첫째, 청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의 상실과 회의, 둘째, 생명력을 상실한 제도종교의 형식주의와 교리적 경직성, 셋째, 청년들을 위한 책임있는 훈련과 양육의 부재로 시대에 부응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2014), 19-21.

다. 허무주의는 도덕을 약화시키며 진리, 사회계약, 미래의 가치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사회를 형성한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미국 내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의 혜택을 받아왔던 극우 남성들이 폐위된 우월성과 뿌리뽑힌 사회적 지위를 수복하기 위해 수치와 원한을 분출시킨다: “Make America Great Again!”⁴²⁾

정치이론가 웬디 브라운에 따르면, 21세기를 맞아 부활한 독재와 권위주의는 신자유주의와 허무주의의 결합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분석은 아니나, 미국 극우 남성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부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브라운의 연구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한국적 프레임, 2030 일베의 감정 동학을 읽는데 효용성이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원한(ressentiment)⁴³⁾은 어떻게 도덕을 사유화하고 예측시켰는가? 니체의 허무주의가 어떻게 왜곡되어 도덕과 가치를, 준 소멸의 단계— 동물적 원한과 분노의 공격성만을 남긴 채 인간다움과 사회의 이상을 붕괴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는가? 브라운은 신자유주의가 ‘허무주의적’ 사회 이론으로서, 허무주의의 탈-신성화가 진전된 단계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허무주의의 주창자 니체는 최고의 가치가 스스로 평가절하되는 정황, 과학과 이성이 신을 대체하여 도덕과 윤리의 근본, 특별히 유대-기독교적 가치들이 근원을 상실하여 깊이를 잃는 시대를 예견하였다. 가치들은 사소해지고, 도구화되고, 표면화되고, 시장에서 거래된다. 허무주의가 심화하면서 문화와 주제, 진실과 이성 또한 상품 브랜드의 일부로 전락한다.⁴⁴⁾ 자유의 이름으로 양심, 개인의 행위와 공동체

42) Wendy Brown, “Neoliberalism’s Frankenstein: Authoritarian Freedom in Twenty-First Century ‘Democracies,’” *Critical Times* 1, no.1 (2018): 74.

43) 본고에서 르상티망(Ressentiment)의 번역을 이하 ‘원한’으로 통일한다. 르상티망의 불어적 연원과 독일에서의 개념 확장에 대해서는 최정화, “르상티망(Ressentiment)과 그리스도교적 윤리에 대한 재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9(2014), 286-8를 참조.

삶의 질서, 가치의 기초를 무화시키며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허무주의의 정점을 찍는다. 허무주의가 가치의 자본화를 부추기는 시스템이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이다.⁴⁵⁾

이러한 세태는 인간의 존엄과 같은 궁극적 전통과 가치를 공격, 조롱, 폐기할 수 있는 오늘날 일베-스타일의 자유를 낳는다. 모든 도덕이 힘에 의지의 표현이라고 동조하는 순간, 일베식 자유는 자연스러워진다: “나도 허무하고, 난 믿는 것도 없고, 세계도 허무하다. 내가 할 수 있으니, 힘에 의지를 관철하련다.”⁴⁶⁾ 가격과 시장 외에는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사회에서 허무주의를 거친 자유의 의미가 일베식 자유로 해석되는 것을 달리 막을 길이 없는 것일까?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란 즉흥적인 시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허구이다. 극우와 결합한 신자유주의의 반규제 문화는 관용, 다원화를 포함한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와해시킨다는 면에서,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민주적 절차와 정책들을 몽겐 결과 사실상 극우의 사회공학은 자유의 이름으로, 전체주의를 향해가고 있다.⁴⁷⁾ 예를 들어, ‘여성주의 이진’으로 돌아가자는 정동적 힘은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소유와 착취가 권리로서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허무주의의 일환이다.⁴⁸⁾ 모든 신성한 가치는 폐기 처분하면서 이러한 전통만은 살리자는 주장은, 깊은 한국 가부장제의 뿌리와 맞닿는 부분이 크다. 1915년에 축첩제를 폐지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지금 재미로 ‘계집신조’를 돌려보고 있다. 데이트 폭력과 치정살인도 줄지 않았다. 한국 남성의 이러한 혐오와 분노에 대해, 개신교회의 가르

44) Brown, “Neoliberalism’s Frankenstein,” 70.

45) Ibid., 77n49.

46) Ibid., 71.

47) Ibid., 74.

48) Wendy Brown, *In the Ruins of Neoliberalism: The Rise of Antidemocratic Politics in the W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9), 172.

침과 문화가 응답해야 할 절실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이를 방치하거나 도리어 불을 붙이고 있다면, 기독교를 혐오의 발원지로 추적하는 비판이론을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브라운이 미국·극우·백인·남성을 원한의 주체로 지목한다. 그런데 이들은 니체가 이론화한 원한의 주체와는 사뭇 다르다. 감히 복수를 시도할 수조차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약자, 때문에 위선적으로나마 강자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약자가 아닌, 근현대 역사에서 줄곧 강자의 위치를 점해왔던 집단의 기현상이다. 우월과 지배의 기억, 강함의 역사가 바로 앞에 놓여 있기에 빼앗긴 권력에 대한 본능적 지향은 일말의 이성이나 균형 감각을 말살하고도 남는다. 극우 지도자는 진보 의제의 ‘희생자’임을 자처하고 지지자들은 열광한다.⁴⁹⁾ 부당하게 ‘폐위’된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정, 조롱, 가학을 통해 적의 고통을 즐길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잔인함은 이 축제의 덕목이다!”⁵⁰⁾ 그러나 권좌에서 쫓겨난 (백인) 남성성의 ‘원한’은 그 어떤 가치나 도덕으로 탈바꿈되지 못한다. 백인 우월주의의 전통적 권위 탈취 외에 그 어떤 대안도, 미래지향도 없이 복수의 에너지만 남는다.

니체가 노예도덕으로 명명한 유대·기독교의 원한 안에는 —비록 박탈의 현실을 지배의 형이상학적 틀로 전환할지라도 —새로운 도덕 원리를 정립하려는 “창조성”이 있었다.⁵¹⁾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극우 개신교가

49) Rahel Jaeggi, “Modes of Regression: The Case of Ressentiment,” *Critical Times* 5, no.3 (2022): 505.

50) Brown, *In the Ruins of Neoliberalism*, 177. “To see others suffer does one good, to make others suffer even more. … Without cruelty there is no festival … and in punishment there is so much that is festive!” Friedrich Nietzsche, *On the Genealogy of Morals*,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1967), 226n.24

51) *Ibid.*, 178. 니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원한(ressentiment)의 삶이 도덕적 가치 전도를 일으키는 기만적 복수이다. “신에 대한 부채,” 죄와 의무 개념의 계보를 분석하며 니체는 약자의 무력함과 증오가 금욕주의적 종교 권력으로 이상화되는 지점을 포착

창조하려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그들의 미래상에서 청년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 니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자기를 극복초월하고, 자부심에 넘치고, 세계를 만들어가는 강력하고 창조적인 에너지였다. 반사적인 원한인 노예도덕과는 달리, 그는 부당하게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는 고전적 아름다움과 고귀함, 강함, 운명에 대한 사랑을 드높였다. 사소화시키고 조롱하는 절망과 분노야말로 노예적 원한일진대, 극우의 원한에서는 고결한 가치를 드높이거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니체가 진정한 강자로 상정한 이들에게는 삶에 대한 긍정, 고통을 마주하는 초월적이며 내재적 강함이 전제되지만, 극우 파시스트에게는 진정한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절제가 빠져있다. 명목상으로는 우월주의의 주체이지만, 절대적 꺾박을 받아온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치를 전도시킬 비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탄복할 만한 정신, “창조적” 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율적인 초인도 찾아보기 힘들다.⁵²⁾

니체의 원한이 2030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니체 사후 그의 인간에 대한 ‘피로’, 인류의 파괴와 불행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오늘날 청년 세대의 정신적 공황 상태는 사회적이면서 영적인 문제이다. 전통적

한다. 그러나 니체 원한의 주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통이나 불만족을 제거할 새로운 가치평가의 틀”을 창출해 내는 상상력, 천재성을 드러낸다. 전경진, “도덕은 어떻게 원한의 도구가 되었는가?—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105/2 (2022), 86.

- 52) “고귀한 종류의 인간은 자신을 가치를 규정하는 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가치를 창조하는 자인 것이다... 고귀한 인간도 불행한 자를 돕지만, 동정에서가 아니라 넘쳐나는 힘에서 비롯된 충동에서 돕는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강력한 자를 존중하는바, 이 강력한 자란 자신을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말하고 침묵하는 법을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고 혹독하게 다루는 데서 기쁨을 느끼며, 엄격하고 혹독한 모든 것을 존경하는 자다.” Friedrich Nietzsche, *Jenseits von Gut und Bose: Vorspiel einer Philosophie der Zukunft*, 박찬국 옮김, 『선악의 저편』 (과주: 아카넷, 2018), 363-4.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고 이제 인간이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인간이 창조해 낸 현실조차 바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과 그 문명도 믿을 수 없다면 청년은 이제 무엇을 윤리의 준거로 삼아야 하는가?⁵³⁾ 그 어떤 가치도 도덕관념도 미래상도 없이 복수와 원한에 목마른 이들— 쌓이고 쌓인 2030 남성의 원한과 허무주의적 절망은 탈출구를 찾고야 만다: “누군가는 내 이 고통에 책임을 져야만 해.”⁵⁴⁾ 극우 이데올로기는 청년의 에너지를 광장의 우울한 분노로 폭발시킨다. 구성신학자 캐서린 켈러는 ‘적(敵)’의 상징과 현전을 중심에 두었던 나치 법 이론가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비판하면서도, antagonism(적의/적대)이 미국 복음주의 극우정치와 야합하는 것을 관찰하며, 일시적으로나마 정치적 통합의 기능을—기독교 핵심인 사랑의 가치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관찰하는 현상에 주목한다.⁵⁵⁾ 온라인 음지의 혐오와 조롱을 놀이 삼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한국 2030 남성의 경우, 주된 혐오의 대상은 아직은 인종·국가·민족 차별이 아닌 성(性)과 젠더, 그리고 진보 정치로 압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극우 패러다임과 뗄 수 없는 연원을 지닌 한국 극우 개신교의 보수 대(大)‘통합’의 담론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타 종교인을 적대시함으로 생성·강화되는 것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서 적의가 주는 동일시, 소속감과 파괴력은 국내외 개신교의 극우화 현상 분석에 필수적이라고 보인다.⁵⁶⁾

53) Brown, *In the Ruins of Neoliberalism*, 181.

54) Jaeggi, “Modes of Regression,” 516. “Someone or other must be responsible for my feeling ill.” Friedrich Nietzsche, *On the Genealogy of Morals and Ecce Homo*, trans. Walter Kaufmann and R. J. Hollingdale (New York: Vintage Books, 1989), 127.

55) Keller, *No Matter What*, 71.

56) 미국적 적의(敵意)는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우방을 부각하기 위해 이에 첨예하게 대비되는 적들을 소환한다: 일자리, 정부 혜택을 빼앗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무슬림, 라틴계 미국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미디어는 이 집단들이 역사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받았던

기독교 윤리가 이러한 마음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교회와 신학이 어떻게 이를 치유하고 해방할 것인가? 작금의 개신교의 행보는 르상티망을 초월하여 “윤리적 절대성(ethischer Absolutismus)”을 주창해야 할 진리의 자리에서 있는가?⁵⁷⁾ 마음과 영혼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념을 막론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시대의 원한에 흐르는 가장 진실한 욕망들을 접합하고 흡수하는 구심점에서 있다. 이것은 희망의 근원일 수도 절망의 씨앗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청년의 현실은 후자에 가깝다. 그리스도가 밝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빛에 이 세대는 갈급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역사적 지평에서 이루어졌듯, 마찬가지로 한국 개신교는 현실의 비참함, 죄악과 고뇌, 육체성, 물질성, 역사성과 혼재하는 청년의 그림자, 어두운 진실을 끌어안아야 한다. 2030 남성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주장이 곧 일베의 정신세계에 ‘혹화’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의 희생·피해·실패·상실의 원한을 듣는 좁고 불편한 길로 한국 기독교회가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내와 희생 없이, 결코 청년의 영혼을 잠식한 허무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전복시킬 수 없다. 청년들의 헛웃음과 비웃음은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2030 남성의 진심 근저와의 화해와 용서를 통해, 이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 세대와 함께 위기와 변혁의 시대를 헤쳐 나갈 가치관을 재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가치의 전도(顛倒)를 선보여야, 전도(傳道)의 의의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청년 그리스도의 정신은, ‘지극히 작은 자를 주체화시키는 사랑과 섬김의 전복이다.’⁵⁸⁾

차별, 2세대들의 경제 공헌을 보도하는 대신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 혐오를 부추긴다. Marcia Pally, “White American Evangelicals and a Populist Ethic,”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London: Routledge, 2023), 359-60.

57) 최정화, “르상티망(Ressentiment)과 그리스도교적 윤리에 대한 재고,” 321.

58)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2. 쾌락과 탈진실: 2030 남성의 영혼을 잠식하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헬스 유튜버 흑자헬스(SurplusHealth)가 유일하게 언급하는 철학자는 니체(1844~1900)다. 흑자와 니체는 닮은 점이 많다. 니체가 삶의 위생학을 강조했던 것처럼, 흑자는 건강한 신체 단련을 중시한다. 니체는 기독교의 우울한 자기연민을 폭로했고, 흑자는 페미니스트와 나거한론(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녀)자들의 자기연민을 공격한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삶의 태도에 있다. 최악의 조건에 놓였음을 인정하고, 건강한 개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려고 한다. 흑자헬스는 MZ들의 니체가 될 자격이 있다. “운동하기 전에 꼭 되새겨야 하는 니체 (1844-1900)의 명언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⁵⁹⁾

탈-신성화의 세계, 가치의 평가절하가 익숙한 세대는 교회 안팎에서 신앙, 혹은 경외 등의 가치가 낯설기만 하다. 힘, 쾌락, 놀이의 틀이 지배적이다. 신자유주의와 허무주의가 강화한 상태에서 청년들의 원한은 오직 흑자(surplus)와 육체적 건강(health)으로만 달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6-8).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막 7:24-30, 마 15:21-28),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사(마 8:5-10; 눅 7:1-10; 요 4:43-54),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30-7),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장소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대화(요 4:1-42)는 제국의 피식민지로서 타 인종과 민족 혐오, 여성 차별을 체화한 가부장제 등 유대 사회 내외의 병폐와 편견을 비판하고 새 시대와 새 공동체를 선포하는 청년 예수의 개방적·혁신적 윤리관을 구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율법 우선주의, 정결 규례, 자민족 중심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서사 그 자체이다. 극우개신교는 한국인들이 야말로 동방의 이방인 중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순수 한국인이라는 잣대로 분열을 조장한다.

- 59) 배수찬, 『2030, 영혼의 연대기』 258. 2030 극우 남성의 야성적 공격성은 동물성-물질성 관능에의 욕망을 감추지 않는다. 니체가 지향하는 고귀함, 비범함, 자기극복과 초월의 건강한 도덕 창조와 이들의 욕망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2030의 쾌락주의와 육체주의가 영육(靈肉)의 이원론에서 전통적으로 정신의 우위를 주장했던 기독교 성직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대치한다는 점에서 일부 상통한다.

파괴가 아닌 자기 투자를 선택하는 청년을 응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흑자헬스의 정신, 몸을 키워야 조회수와 스폰서십이 따라오는 이 쾌락은 자본에 예속된다.⁶⁰⁾ 유택미를 가꾸기 위해서는 단연 규율이 요구되지만, 윤리적 성찰은 필요하지 않다. 결국 2030의 관심을 장악한 온라인 세계에서 시장이 원칙이 가치를 결정한다. 시장이 도덕적 진리—착한/가격, 착한 몸매—로 둔갑하면서, 청년의 욕구와 욕망은 상품화되어 마케팅의 일부가 된다.⁶¹⁾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이들의 무능을 탓하며 불안정성의 책임을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돌려주는 냉혹한 체계이다. 글로벌 자본이라는 강력한 체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소외되는 이들의 무력감은 거대한 구조 자체와 ‘대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무한경쟁 구조에서 2030 남성은 알파와 베타, 성공과 실패, 우월한 쟁취자와 상대적 박탈감에 이를 가는 ‘루저’로 서로 간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획일화한다. 이러한 조건과 목표에 따라서만 수립되는 사회는 개인주의적 자유가 만연하여 대다수 청년을 고립된 불운의 가장자리로 내버려둔다.

청년의 몸 만드기를 ‘죄’ 혹은 ‘사망’과 엮는 시도는, 의도에 상관없이 루저의 르상티망으로 배격된다. 청년의 유택성과 남성성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영적 가치에 대한 체념, 포기, 망각으로 이어지는 내적 결핍은, 신학적·윤리적으로 매우 문제적이다. 허무주의는 양심(롬 2:15)을 부정할 수 있고, 신자유주의는 분별(롬 12:2)을 흐릿하게 만든다. ‘내가 왜?’ ‘내가 뭘데?’ 이기주의는 기독 공동체와 대치한다. 교회는 믿음과 양심이 약한 타인을 위해 강한 이의 자유를 절제하여 균형을 맞추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다(고전 8:9). 원한/르상티망의 전염 가능성을 염두에

60) Brown, “Neoliberalism’s Frankenstein,” 72.

61) Ibid.

두는 배려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비교의식과 이러한 정체성을 맞바꾼다. 한국 개신교 청년은 율법의 제약으로부터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탐욕이라는 제국의 유혹과 매 순간 씨름해야 한다. 사도들의 선교와 사목 현장에서 맹위를 떨쳤던 위계, 경쟁, 시기, 질투는 시대를 초월해서 청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ἄνθρωποι φίλαυτοι)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딤후 3:2-5)

노예제는 철폐되었을지 모르나, 현대인은 국가·지역·성별·소유물 등 눈에 보이는 구조에 의해 규정되고, 예측되고, 규제받는다. 개개인의 끈질긴 자유 추구에 의해 정체성의 공고함에 균열을 내며 이를 바꾸어나가는 하지만, 자본과 사회의 강요에 맞서 늘 스스로를 성찰하고 재정립해 나가는 것은 진정으로 어렵다. 자본과 능력에 의해 계급화되고,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자울을 포기하고, 예측과 조종을 묵인한다. 우리는 무언가, 누군가에 중독되어 있다. 그런데 힘, 몸, 돈, 쾌락에 중독되는 것은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행위이다 (롬 6:12). 순종이라는 단어는 2030에게 인기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순종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이미 지배(βασιλευέτω)하는 상태에서 몸의 욕망을 듣고, 경청하고 따른다(ὕπακούω)는 의미이다.⁶²⁾ 복종(服從)이든 순종(順從)이든 청년

62) “Μὴ οὖν βασιλευέτω ἡ ἁμαρτία ἐν τῷ θνητῷ ὑμῶν σώματι εἰς τὸ ὑπακούειν

은 무언가를, 누군가를 따르고 있다. 이끌어가는 이, 끌려가는 이, 물드는 이 할 것 없이 알고리즘의 추천을 따라가고(‘팔로우’) 있는 것이다.

개인의 육체와 본능의 충족이 자유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러한 추구가 개인과 사회를 진정 자유케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에 대한 진단만큼은 명확하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롬 8:2)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실천은 생각보다 어렵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양심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작용할 때, 법적·사회적·윤리적 기대들이 선악에 대한 불편한 판단, 내면의 깊고 강렬한 저항과 맞닥뜨리는 것이다 (롬 7:15-9). 허무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용인하는 모든 의도와 행위들이, 이 순간 하나님의 뜻, 거룩함과 영생의 방향과 합치하기를 원하는 2030 기독교 청년에게 초래할 고뇌는 사실상 끝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양심과 씨름하는 청년이야말로 예속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변혁의 주체로 설 수 있다. 기독교윤리적 자유는 영적 투쟁으로 성취된다. 신자유주의적 쾌락은, 즉각적 만족을 제공하는 대신 양심의 비평을 소거한다. 청년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몸과 자산관리에 열중하지만, 사회나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자신을 이끄는지 묻지 않는다. 궁극의 만족을 선사할 수 없는 쾌락의 추구, 결국 해소되지 않는 청년의 에너지는, 허무주의적 원한과 절망과 마찬가지로 그의 영혼을 파괴로 몰아넣을 수 있다. 최대한의 자유를 가장해 영성·감성·지성의 윤리적 목소리를 묵살한 상태라면, 지친 청년의 영혼이 양심과 통제력을 더 큰 집단에 합일시키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복종과 예속의 흐름을, 역사는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양심과 분별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넘쳐나는 청년의 자유는 방향성을 잃고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권위를 찬양한다. 브라운은 이러한 자유가 개인주

의적 자유, 국수주의를 옹호할 자유로 응집되며 극우 이데올로기 안에서 도덕, 사회계약, 민주적 가치를 열광적으로 파괴하는 실상을 폭로한다. 청년 남성은 사회적·정치적 폭력에 적응하여, 스스로 ‘폭망’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⁶³⁾

2030 남성의 온라인 문화가 원한과 쾌락에 전념되기 쉬운 것은 상식적 합리성의 부재, 심지어 거짓 정보가 버젓이 통용되는 탈진실의 반윤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이 무심히 선택한 혐오의 언어는 퇴폐적 흔적을 남기고, 가상 세계로 침잠해 가는 2030의 현실 도피, 집착, 태만은, 오프라인 자아와 분리된 영혼 ‘상살’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음지에서나 통할 조롱과 해체, 가벼움만으로 현실을 마주할 수 없다.⁶⁴⁾ 오늘날 여기에서의 삶이, 소셜미디어와 게임 커뮤니티 아바타로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청년의 시간성은 지금, 여기라는 물질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놓여 있다. 교회는 젊음의 귀중함과 함께 유한함을, 청년의 실천이 진리와 공동체 앞에 책임을 져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 인간관은 죄악과 고통의 실재를 다루며, 이와 씨름하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가가려는 영혼의 참된 도정을 권면하지 않는가?

비트코인 투자, 전쟁 게임의 레벨업, 수고를 수입으로 전환하려는 갖가지 ‘노오력’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에서, 청년들이 닦친 문제들의 무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봉착한 위기와 영육의 한계를 그리스도인이 공감하고 공

63) Brown, “Neoliberalism’s Frankenstein,” 73.

64) “다시-일베(일간베스트)-팸코(에팸코리아: 축구와 게임을 기반으로 한 청년 남성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통적으로 진보조롱-좌파혐오-페미니즘 증오의 정서가 흐른다. 이 시대 청년들의 영혼의 축도. 상대를 신속하게 쓰러뜨리기를 열망하는 게임의 날카로운 언어, 게임이라는 온라인 세계의 허구가 가져다 주는 실존적 가벼움을 그들은 체득하고 있다. 비슷한 또래들에게서는 가볍지만 강고한 동질감을, 앞 세대들(특히 그들에게 ‘진보좌파라 불리는 오늘날의 40~50대들)에게는 경멸감 내지 미움을 공유한다.” 배수찬, 『2030, 영혼의 연대기』, 41-2.

유할 수 있어야 복음서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삶의 준거를 영육이 공존하는 타자와의 정중한 대면이 아닌 가상현실에 정초할 경우, 2030의 상징계는 조롱, 혐오, 거짓말이 인지적·정서적 고려를 거치지 않고 뒤엎겨 그야말로 언어‘쓰레기’로 침철된다. 이것이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맨얼굴이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성서적 언어관에 따르면, 말씀은 “진리와 공의”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대언 (슥 8:8)이다. 진리는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척도이며, 소통의 진실성은 삶과 죽음까지도 매개한다. 예언자적 분노, 공의의 언어를 선포해야 할 교회와 기독교 청년이 진리의 문제를 왜곡하고 훼손함으로 사회의 정신문화에 초래한 폐해는 이미 심각하다. 강요된 진리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익숙한 세대에게 참과 거짓, 선악의 분별을 가르치는 방식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오직 삶으로 드러나는 인격과 실천일 것이다. 2030 남성들이 공(公)적 공간에서, 공동체(共同体)의 진중함과 덕을 함께 고민하고, 비방이 아닌 건설적 비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IV. 나오면서: 기독교 청년의 과제와 청년 예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2030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는 사랑과 정의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기성 권력의 불의에 진노하셨다. 청년 예수의 예언자적 분노는 차별과 혐오를 초월하는 환대에 기반하였기에 주류 질서로부터 거부당한 취약계층이 그의 전복성에 감화되고, 협력하여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당대 청년의 좌절된 욕망을 인지하고 위로하며, 타자화된 이들의 존엄을 세워줌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종교 엘리트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을 예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생업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막 1:16-20). 제자들은 당대의 ‘알파벳’이 아니었지만, 청년 예수의 실존을 믿고 그분을 따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를 예견하듯, 복음서는 경쟁, 자기과시, 세속적 권력을 향한 욕망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에 투사하는 청년 제자들의 면모를 증언한다.⁶⁵⁾

오늘날 2030 남성 또한, 인간의 존엄마저 자본에 의해 계량·계급화된 영혼의 사막을 헤쳐가고 있다. 물론 서부지법 폭동 전후의 기독교 파시즘에 청년들이 가세하며, 더 이상 ‘헬조선’의 2030을 감상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극우 개신교는 연대에 목마른 청년 남성을 전체주의 욕망과 강렬한 남성성의 호소로 포섭하였다.⁶⁶⁾ 시민성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위배한 극우 2030을 바라보는 다수 기독 청년들 또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보여준 ‘광장 속 기독교’의 모습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감의 종교가 아니었다는 비판”⁶⁷⁾에 위기의식

65)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들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마 20:20-4)

66) “청년 남성들의 정서적 욕구—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근원적 욕망, 귀속 의식—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이들을 극우 집단으로부터 강제로 분리하려는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얼마든지 해체를 딛고 새로운 극우 상징을 끈질기게 재생산해내기 때문이다. 청년 남성의 감정에 주목한다면, 자기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프로젝트에 ‘영웅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건설적 유대감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청년 남성들을 오로지 분노와 원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대신, 여러 층위의 향수(鄉愁), 질서에 대한 욕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열망을 지닌 주체들로 인정해야 한다. 교육, 복지, 공중보건, 정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이 인정 욕구를 의식해야만 진압과 처벌이 아닌, 이들의 열망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정책들이 시도될 수 있다.” Miller-Idriss, *Hate in the Homeland*, 168-9.

과 반성, 사회적 섬김을 무겁게 고민하게 되었다.

한편, 브라운의 신자유주의와 원한 분석에서 밝혔듯이, 2030이 구조적 폐해 속에서 경험하는 배제와 허무감은 이미 개신교 극우 이데올로기와 의 접촉 이전에 비교 의식, 적의, 복수의 에너지로 결집해 있다. 지배적 경제체제의 물신(物神)은 청년이라는 범주가 고정된 가치인 양, 영속을 꿈꾸는 몸의 상품화·우상화를 부추긴다. 육체적 쾌락과 가치평가에의 집착은 청년 남성의 계급 상승 욕망을 끊임없이, 지칠 때까지 자극한다. 자본의 논리는 이념을 막론하고 한국 사회에 팽배하므로, 군사주의적 남성성의 폭력에 비해 그 윤리적 해악을 감지하기 더 어렵다. 그러나 사리 사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 가르침으로부터 영혼을 분리시킨다. 청년 예수는 그 젊음의 특권을 산 제사로 드림으로 공생애의 막을 내렸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청년은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고 탈주하며 예언자적 비판 정신과 분별하는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신앙주체로서의 청년은,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고, 타자의 윤리를 지향하며, 청년 예수를 따라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감과 환대를 실천한다.⁶⁷⁾ 유한한 청춘(전 11:9-10)을 더 사랑하는 영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영생을 향유하지 못한다 (요 12:24-5).

본고는 이러한 물질적·정서적·영적 여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2030 남성을 ‘잠재적 극우’로 배척해 온 담론 대신, 이들의 자괴감과 소외, 불안, 괴리, 두려움과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2030 남성과 극우 개신교의

67) 김상덕, “공감의 두 얼굴, 그리고 종교—공감에 관한 신경인문학적 성찰과 종교의 역할,” 『신학사상』 207(2024), 299.

68) “진정한 공감이 자기를 초월하여 타자의 입장에 서서 느끼고 헤아리며 나아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넉넉히 환대하는 것이라면,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과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진정한 공감과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한 은총의 경험을 축적해 온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종교와 한국 교회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김상덕, “공감의 두 얼굴, 그리고 종교,” 300.

조직화는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청년을 위한 공간과 대안 부재를 반증하는 충격적 계기였다. 교회는 더 이상 2030 남성과 극우화를 이들만의 문제로 도외시·방관할 수 없다. 광장의 충격은 청년 극단화의 분석과 더불어 교회가 청년 남성을 위한 책임의식을 지녔는지 근본적으로 묻게 했다.

청년 예수의 사역과 그의 계명을 받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먼저 2030 남성을 그리스도의 성전, 지체와 동역자로 환대해야 한다. 2030 남성의 표면화된 공분(共憤)이 위기라면, 이들에게 있어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성서적·신학적·윤리적으로 새로이 묻고 응답할 가능성을 개진하자는 것이다. 2030 남성의 열망과 동력이 “파괴하고, 테러하고, 복수할 힘”⁶⁹⁾으로 응축되기 전에, 이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과 사회 변화의 주체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교회와 신학은 배제가 아닌 선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독교윤리학의 청년 담론과 개신교회 운동 차원의 협력이 심화되어, 연대와 쇄신을 통해 2030 기독 남성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부상할 구체적 기획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69) 배수찬, 『2030, 영혼의 연대기』, 256.

참고문헌

-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서울: 책세상, 2005.
- 김상덕. “공감의 두 얼굴, 그리고 종교-공감에 관한 신경인문학적 성찰과 종교의 역할.” 『신학사상』 207(2024), 277-305.
-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파주: 창비, 2020.
- _____. “분단의 마음과 환대의 윤리: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탈북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5(2017), 195-227.
-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2014), 7-36.
-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정치신학적 비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배수찬. 『2030, 영혼의 연대가: 왜 그들은 윤석열을 선택했나』. 서울: 통나무, 2025.
- 배은경.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2015), 7-41.
- 백소영. “맘충 혐오의 후기-근대적 의미.” 권지성 외 『혐오와 한국교회』. 서울: 삼인, 2020, 206-223.
- 신진욱.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 파시즘.” 신진욱 외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파주: 문학동네, 2025, 21-70.
- 양승훈. “2030 남성 프레임 전쟁—그들에게는 없는 응원봉.” 신진욱 외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파주: 문학동네, 2025, 117-174.
- 이민형. “기독교청년의 신앙: 한국교회의 이미지, 경험, 기대에 대하여.” 『신학과 실천』 88 (2024), 863-888.
- 이봉석. “MZ세대의 통일의식과 한반도 ‘두 국가론’의 암묵적 지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 『기독교사회윤리』 59(2024), 345-376.
- 이승윤. “늑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지는 청년들.” 신진욱 외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파주: 문학동네, 2025, 175-219.
- 이지성. “코로나19 시대, N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107-133.
- 인문학협동조합.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서울:

- 현실문화, 2015.
- 장규식. “민주화 이후 한국의 개신교와 시민사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48(2018), 5-30.
- 전경진. “도덕은 어떻게 원한의 도구가 되었는가?—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105/2(2022), 81-100.
-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2022), 5-39.
- 최정화. “‘르상티망(Ressentiment)’과 그리스도교적 윤리에 대한 재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9(2014), 281-329.
- Brown, Wendy. *In the Ruins of Neoliberalism: The Rise of Antidemocratic Politics in the W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9.
- _____. “Neoliberalism’s Frankenstein: Authoritarian Freedom in Twenty-First Century ‘Democracies,” *Critical Times* 1, no.1 (2018): 60-79.
- Jaeggi, Rahel. “Modes of Regression: The Case of Ressentiment,” *Critical Times* 5, no.3 (2022): 501-37.
- Keller, Catherine. *No Matter What: Crisis and the Spirit of Planetary Possibilit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24.
- Miller-Idriss, Cynthia. *Hate in the Homeland: The New Global Far Ri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 Nietzsche, Friedrich. *Jenseits von Gut und Bose: Vorspiel einer Philosophie der Zukunft*. 박찬국 역. 『선악의 저편』. 파주: 아카넷, 2018.
- _____. *On the Genealogy of Morals*. Translated by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1967.
- Pally, Marcia. “White American Evangelicals and a Populist Ethic.”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edited by D. Stephen Long, Rebekah L. Miles, 352-371. London: Routledge, 2023.
- Paxton, Robert. *The Anatomy of Fascism*. 손명희, 최희영 역.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서울: 교양인, 2005.
- 김창환.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 『시사IN』 2025년 7월 2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79>, 접속일 2025년 7월 8일.
- 삼프로TV. “왜 이렇게 개신교가 극우화 됐냐고요?: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

표,” <https://www.youtube.com/watch?v=PSeWRxYNbCA>, 접속일 2025년 6월 22일.

신진욱. “극우’ 문제, 제대로 봐야 한다”, 『한겨레신문』, 2025년 7월 2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5798.html>, 접속일 2025년 7월 6일.

어수용. “2030 남성은 왜 민주당에 등 돌리나,” 『조선일보』, 2025년 3월 3일.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5/02/04/RWIGX7ITVVBKXEHJIW2VFKMCSM/>, 접속일 2025년 7월 6일

논문투고일: 2025년 07월 14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11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12.3 내란을 옹호하며 광장으로 나온 극우 개신교와 2030 남성의 조우를 감정과 문화,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성찰한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배척의 논리를 지양하고, 한국 청년 남성의 실존을 마주하여 치유와 하나님 나라 건설로의 윤리적 담론 전환을 제안한다. 극우화에 취약한 2030 남성의 불안은 신자유주의의 끊임없는 가치평가절하에 기인한다. 한국 사회로부터 뿌리뽑힌 청년 남성은, 우월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국가주의적 남성성의 귀환을 주장한다. 기독교화된 극우개신교는 이러한 청년의 분노와 고통을 결집시켜 반공 이데올로기·민족주의·권위주의를 강화한다.

웬디 브라운의 신자유주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 사회·문화에 만연한 백인우월주의와 남성 극우화는 자본을 제외한 모든 가치를 탈신성화하는 허무주의의 일환이다. 본 연구는 이어 니체의 원한 개념을 통해, 경쟁에서 소외된 한국 2030 남성의 혐오와 파괴의 정서를 분석한다. 이러한 양상으로 극우이데올로기에 포획된 남성성은 청년 예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대척한다. 따라서 기독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비판 정신, 사랑과 섬김의 전복성으로 극우 개신교의 폭력에 맞서야 한다. 2030 기독교 남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녀이자 동역자, 새 공동체를 건설할 변혁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한국 극우 개신교, 기독교적 가치, 극우 청년, 남성성, 신자유주의, 원한, 하나님의 나라
